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8. 17.(목) 배포 2023. 8. 17.(목) 15:00

행복청, 확장가상세계를 통한 시민 체험형 도시계획 구현

- 가상공간에 도시계획을 구현하는 시범사업 실시
- 체험을 통해 개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자주도형 도시계획 추진

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(청장 이상래, 이하 행복청)은 도시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서면 위주로 실시 되었던 과거의 의견수렴 방식에서 벗어나, 도시계획을 적용한 가상공간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한 후 개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수요자주도형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새로이 추진한다고 밝혔다.

통상 생활권별 도시계획에 대한 의견수렴은 누리집 게시나 공청회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져 왔는데, 이 과정에서 제공되는 조감도나 도면, 설명서 등의 서면자료를 전문가가 아닌 시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.

이에 따라 행복청은 2023년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권 도시계획을 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*(Meta-Verse))를 통한 2.5디(D)의 가상공간으로 조성하고, 시민들이 직접 캐릭터(아바타)를 통해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

* 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) 현실과 동일한 공간을 가상공간에 구축하고, 아바타(Avatar)를 통해 현실과 동일한 경험을 가상공간에서 실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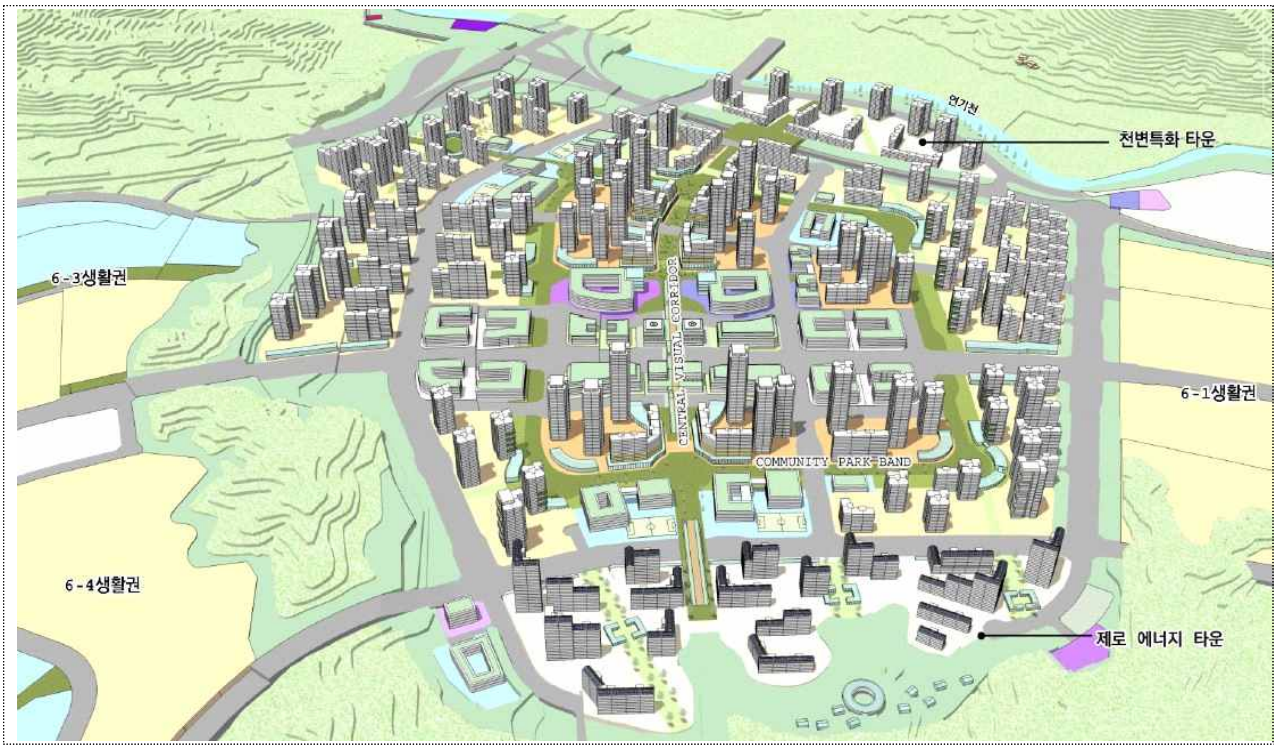
체험과 이해를 바탕으로, 도시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도 직접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의 도시계획 관리방안을 시범 추진하기로 하였다.

대상지는 2022년 6월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6-2생활권이며, 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)의 구축완료 시점은 9월로 계획되어 있다. 가상공간에는 시민들이 도시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장소도 함께 구축될 것이

며, 행복청은 해당 공간을 통해 제시되는 시민 제안 중 타당성이 높은 제안들은 도시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.

행복청은 “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확장가상세계(메타버스)를 활용하여 시민들이 가상 공간을 체험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방식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으며, 수요자가 체험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.”며 “이번 시범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보다 더 쉽고 가까운 도시계획 수립방안을 고민해 나갈 것이다.”고 밝혔다.

< 6-2생활권(대상지) 조감도 >



담당 부서	기획조정관 혁신행정담당관	책임자	과장	정래화	(044-200-307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지화	(044-200-3080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